어린이 책꽂이

▲노란 잠수함을 타고=잠수함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의 설레는 마음을 담은 그림책이다. 거미, 고양이, 개구리, 토끼 등 네 친구들의 우정과 흥미진진한 바닷속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시공주니어·8천원〉

▲춤추는 코끼리와 인도여행을=인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할아버지와 손자사이의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인도의 지리와 종교, 문화, 동물, 음식에 관한 이야기와 주인공 라비가 만든 코끼리 춤곡 악보가 실려 있다. 〈해와 나무·8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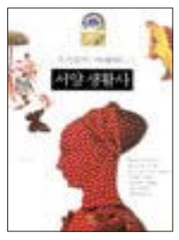
▲100가지 민족문화 상징사전=민속역사학자 주강현씨가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100개 상징들을 선정했다. 한민족의 상징, 자연과 과학기술, 역사와 인물, 사회와 생활, 종교와 민간신앙, 언어와 예술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한겨레 아이들·2만8천원〉

▲과학사의 빛나는 순간=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야기를 묶은 것으로 마치 기록영화나 옛날 사진첩을 보는 듯 하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제임스 와트, 아이작 뉴턴, 알렉산더 플레밍,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주요 과학자들의 업적이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웅진주니어·1만1천원〉

▲12가지 그림안에 실수들이 우글우글(전3권)=집중력과 관찰력을 높여주는 '어디가 틀렸지?'의 시리즈 북. 세익스피어 연극에 진공청소기를 하는 사람, 서부영화촬영장에 말을 탄 슈퍼 맨 등 시대에 맞지 않은 그림을 찾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토마토 하우스·9천원〉

로마인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나

… 서양생활사 김복래 지음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정치와 경제 구조 등을 살펴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대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자식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 등 조금은 시시콜콜하게 느껴지는 요인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 역시 한 시대를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안동대 김복래 교수가 펴낸 '속속들이 이해하는 서양 생활사'는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까지 수천년 동안 서양인들의 삶의 모습을 의식주 생활, 가족생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통해 살펴본 책이다..

가족 생활을 들여다 보자. 출산율 저하와 이혼율 증가는 2007년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닌 모양이다.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정시대 지도자들 역시 혼인율 하락과 이혼율 급증, 아이 낳지 않는 풍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아우구스투스는 결혼을 장려하고 독신을 법적 무능력자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 기원 전 131년 마케도니우스는 로마 남성들에게 국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우리가 만일 아내 없이도 자녀 생산을 잘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르네상스까지

서양인 삶의 모습 들여다보기

자식 없는 로마인을 벌 주기 위한 법도 속속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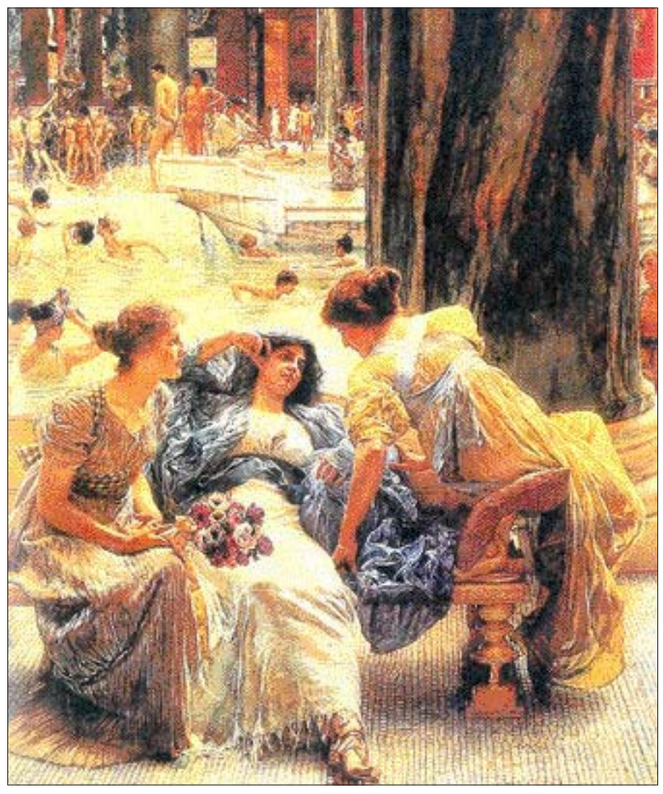
혼인율 저하는 포에니 전쟁 후 여성들의 권한과 부가 커지면서 발생했다. 여성들은 전리품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전쟁 때문에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활발한 대외정복 활동으로 그리스 학문의 지적 혜택은 여성에게까지 확대됐다.

자기보다 훨씬 부유한 여성들과 결혼해 '지참금의 노예'가 되어버릴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남성들은 결혼에 대한 의무를 버리고 축첩과 매춘은 날로 번성했다. 혼인율이 낮아지니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다.

당대인들의 식습관과 문화활동은 어땠을까.

민속춤은 한 민족이나 집단이 영위하고 있는 생활 방식이나 전통과 불가분의 관계다. 춤을 '신들의 발명품'으로 믿고 사랑해온 그리스인들은 춤을 종교의식과 그대로 연결시켰다.

로마인들은 '대식가'이자 '미식가'였다. '매일 먹기 경연을 벌여 상금을 주고 새의 깃털로 목구멍을 간질여서 먹은 것을 토해 내고 다시 먹기를 반복했다'는 기록이 이를 대변한다.



카라칼라의 목욕탕. 이 목욕탕은 냉탕실, 온탕실, 한증실 외에도 큰 홀, 도서실, 점포, 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한 번에 1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로마인들에 공중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예배당'이었다. 저자는 거대한 규모와 도서실까지 포함한 상이한 시설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목욕탕을 현대의 '쇼핑센터'로 묘사한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는 음식이 된 르세상스의 파스타에 얽힌 일화, 로마인의 피임법, 등 60여편에 이르는 '재미있는 토막 이야기'는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글과 관련된 유명 그림의 컬러 도판도 풍성하다.

〈안티쿠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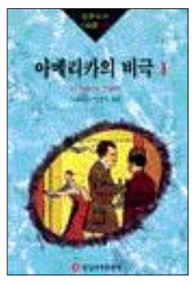
드라이저 '아메리카의 비극'

19세기 산업혁명 후 신흥자본주의가 산업사회의 근간 이념으로 자리 잡을 때 세상은 하느님의 이데아에서 사탄의 야심으로 전락했다. 양심보다는 돈, 돈…. 예술의 신 뮤즈의 아름다움보다는 동물적 사랑과 욕망의 분출, 세계는 이미 맘몬(Mammon·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덕의 부신(富神)으로, 사탄의 하수인)이 지배하고 있었다.

소설가들은 리얼리즘과 자연주의적 수법에 의해 물욕과 돈 앞에 타락한 인간적 사회적 비극을 실증철학에 입각해 폭로했다. 프랑스의 대작가 에밀 졸라의 실험소설론에 입각한 결정론적 소설 '르공 마카르 총서'(동원된 인물 1천200명, 20권의 방대한 총서)도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적 인간상을 그린 것이고 그보다 앞서 발표된 스탕달의 '적과 흑'도 빈곤한 청년 줄리앙 쏘렛이 계층상승을 위해 돈과 부를 탐하다 사형대에 오르는 비극을 다루었다.

'나의 죄는 야망과 빈곤일 뿐 아무 죄도 없다'는 최후 진술과 같이 죽는 순간까지 그 죄명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범죄자는 줄리앙이 아니라 '돈'이었다. 이러한 유럽의 기류가 신흥 아메리카로 흘러간 것은 신세계의 개척사와 함께 거대한 나라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 미국의 독립에서 그 비극은 잉태되었다.

돈이란 덫에 걸린 사회의 비애



드라이저(1871~1945)의 '아메리카의 비극'은 소설이기보다 당시 신흥 자본주의 발흥의 아메리카 보고서이며 그와 같은 운명을 걷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극 자체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돈으로 통하며 그 맘몬 대왕의 거대한 힘 앞에서 양심과 도덕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며, 그 돈 앞에서 온갖 악덕은 활개를 치고 모든 염치 체면을 뭉그러뜨린다. 책에서 그리고 있는 일그러진 인간들의 약육강식 사회에는 오직 생존경쟁이 있을 뿐 모든 척도가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 권력과 부력이 손을 잡고 중매쟁이가 돼 재벌과 재벌을, 권력과 재벌을, 재력과 두뇌를 서로 연결한다. 부동산투기라는 저질 경제성장에 기반을 둔 세상은 사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된다.

'아메리카의 비극'은 빈곤층에 태어난 22살 청년 크라이드이 주인공이다. 그는 피츠레이가(家) 대부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임신까지 했지만 가난한 연인, 로버타를 버리려고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실패한 뒤 전기 의자에 올라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드라이저로 하여금 사회주의자가 되게 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한 이 작품은 돈과 부력 앞에서 결정론적 약육강식의 희생물이 되고 만 한 청년의 비극을 통해 아메리카의 비극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20세기의 로마'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초강국으로 거대한 '덫'과 같다. 큰 덫에 비해 너무 작은 존재 크라이드의 비극은 몽고메리 크리프트와 에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으로 영화화('젊은이의 양지')되기도 했다. 우리에게 이 소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돈을 앞세운 맘몬 대왕의 유혹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이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병 란 〈시인〉

히말라야 트레킹 6개월간의 일기

여자 혼자 떠나는… 김남희 지음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의 작가 한비야씨와는 다른 스타일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도보여행가 김남희씨의 네 번째 여행 에세이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여행 4'가 출간됐다.

1권 국내 편, 2권 스페인 산티아고 편, 3권 중국·라오스·미얀마 편에 이어 이번엔 히말라야 산맥을 걷는 '네팔 트레킹 편'이다. 저자는 총 6개월 동안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안나푸르나, 랑탕·고사인쿤드 트레킹 등 3번의 트레킹 여행기를 일기 형식으로 담았다. 한 코스 당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걸리는 여정. 여자 혼자서 6개월 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을 여행하는 저자가 무척이나 씩씩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이기도 한 저자의 솔직한 글을 통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생긴다. 현지 여행자를 위한 상세한 정보는 보너스다.

〈미래M&B·1만3천8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유명 인문학자 19인이 쓴 플라톤·에코…

고전의 향연 강정인 외 지음

국내 유명 인문학자들이 고전을 다시 읽었다.

'고전의 향연'은 한겨레신문에 2년 동안 연재했던 '고전 다시 읽기'를 추려서 엮은 것. 필자는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배병삼(영산대 정치학 교수), 심경호(고려대 한문학 교수), 안광복(중동고 철학교사), 이권우(도서평론가), 이정우(철학아카데미 대표), 이진경(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교수) 등 19명.

이들이 선택한 고전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까지 80여명이 쓴 92권이다. '오래된 지혜, 서양 사상', '동아시아의 지형도, 동양 사상', '우리가 걸어온 길, 한국의 사상과 문화', '절망과 희망의 파노라마, 정치·역사', '천개의 마음, 문학', '낙원을 여는 문, 과학' 등 총 6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의 책 당 6페이지의 짧은 분량이지만 깊은 사유의 실마리를 던진다. 〈한겨레출판·2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